

소설 심사평*

이화경

광주의 5월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인 작품들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 도처에서 야만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역사적 퇴행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시기에 문학적으로 대응하는 귀한 작품들을 뵈니 송구스럽고도 고마웠다.

하지만 작품들을 꼼꼼히 읽어본 결과, 5월의 비극에 깊게 침윤되어 살아남은 자의 슬픔, 고통, 자책, 울분, 자학과 같은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현실 극복의 의지와 열망을 치열하게 탐색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체험했던 참혹한 실상을 쏟아내고 있는 작품도 다수였다. 항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에 각인된 흔적과 트라우마는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현재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문학이 갖고 있는 고발과 증언의 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5월 항쟁을 문학적으로 수용하는 데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소재주의적이고, 관성적인 측면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강렬한 감응력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5월 항쟁을 인간과 역사의 보편적인 의미로 승화시키고, 현재적 가치로 복원하는 작품에 더 많은 눈길과 애정이 간 것은 사실이다. 5월 항쟁을 지금의 이곳으로 현재화시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 작품들을 먼저 선정했다. 아울러 서사적 전략과 인간세대에 대한 성찰과 문체의 개성, 대중성 여부도 고려했다.

먼저 네 편의 작품을 놓고 우열을 가리게 되었다. <몽치>는 군대 의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다. 군대 제대를 앞두고 있는 주인공이 군대 내부의 음험한 목계에 의해 묻혀버린 어느 젊은 군인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혼란을 기록한 소설이다. 주인공이 구축해온 안정적인 군대 공간이 순식간에 폭력과 죽음과 죄악의 공간으로 치환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었으나 마지막을 조금 감상적으로 다룬 게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금릉여인숙>은 일종의 성장기의 형태를 갖춘 작품이었다. 제도적 폭력이 어떻게 육체와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를 조목조목 살피는 침착함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폭력에 의한 패배의 상처를 갈무리하고

생의 비극을 인정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작품 전체에 호소력을 부여하고 있었다. 과거의 회귀를 반복하면서 인식의 성장을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으나 5월이 남긴 상처를 좀 더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엮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악마의 연애>는 우선 문체와 발상의 발랄함이 장점으로 지목되었다. 치욕스럽고 초라한 일상을 위악적으로 돌파하는 앙팡 테리블의 위장(僞裝)이 체불된 임금을 받고자 투쟁하는 어른들의 모습과 교차되면서 역동적인 재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주인공이 가족과 어른들의 모습을 위악적이고 냉소적으로 읽어내는 독법이 자칫 생의 비극성을 지나치게 희화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알터 예고>는 소설문법에 충실한 작품이었다. 안정된 구성이며, 디테일 묘사며, 주제의식이며, 인간에 대한 성찰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단연 돋보였다. 광주항쟁에 대한 빠져진 성찰의 공간을 자본의 속물성과 천민성의 상징인 경마장으로 선택한 작가의 의도가 독특했다. 철저히 몰락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열된 주인공의 내상(內傷)의 뿌리를 현재와 과거를 갈마들면서 찬찬히 살피고 있는 시선도 안정적이었다. 수상을 축하드린다. (이화경/소설가)